

깨달음 익어가는 점수 중시

잡아함경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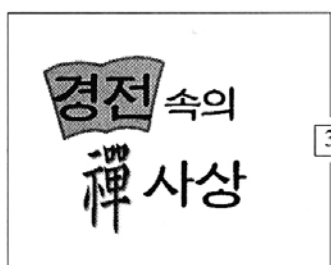


김정빈 <작가>

이것이 바로 위빠사나의 입장이기도 하다.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법은 공통점과 더불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순수직관과 관련하여 비교하면 사마타 수행이 자신과 세계를 어떤 선입견을 버려 버려 버려 바라보는데 비해 (비록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일지라도

행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빠사나는 그 극치에 이르러 교의별전, 불입문자를 극도로 강조하는 선과 통할 수밖에 없다.

위빠사나 수행법을 통해 '그대로의 불'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면 성성적(惺惺寂寂)한 삼매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침내 반야(般若), 즉 지혜가 생겨난다. 그것은 수행자가 정정(正定, 팔정도의 여덟 번째)을 거쳐 정견(正見, 팔정도의 첫 번째)을 체증(體證)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따라서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을 추



3

계학·정학 딛고 반야지혜 생겨

사마타 선입견 전제 위빠사나 있는 그대로 통찰

구하는 선과 아무 전제없이 '있는 그대로의 오온'을 통찰하고자 하는 위빠사나가 성취하는 궁극적인 경지가 매우 비슷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약간의 상이도 없지 않다.

첫째, 위빠사나는 삼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수행법으로서 계라는 1층과 정이라는 2층을 딛고 구축된 3층으로서의 수행법이다. 그에 비해 선은 계와 정을 파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바꿔말해서 선은 3층만을

독립시켜 유난히 강조하는데 비해(선사들은 유득 明眼, 즉 正見을 강조한다) 위빠사나는 1층과 2층의 진실한 기초를 그에 합당한 정도만큼 인정하며, 그것 없이는 3층이 구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빠사나 수행법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중시된다. 그것은 '중생이 아닌 부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중생 속에서 점차 깨달음이 익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보다 유연한 태도이지만,

선에서는 이같은 태도를 점수(漸修)로 치부하여 평가절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선이 중생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본래정심(本來清淨心)을 전제하는데 비해 위빠사나에서는 그런 전제가 없다는 점,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식의 힘을 강화하는 통찰(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위빠사나는 선과 다르다. 따라서 위빠사나, 즉 잡아함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阿羅漢)과 화두선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한 선사(禪師)의 체증이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또한 쉽지 않다.

잡아함경에는 선이 숨겨져 있다. 다만 그것은 돈오(頓悟)적이라기 보다는 점수(漸修)적인 선이며, 활발발(活潑潑)한 남성적인 선이라기 보다는 고요하고 맑은 여성적인 선이다. 그러면서도 위빠사나는 화두선의 극치인 순수직관을 깨달음을 전제하지 않는다. 낮게는 계·정이란 1·2층과 상응하고, 높게는 순수직관을 3층까지 덮어 있는 선이 위빠사나 선이다. 3층에 이르러 위빠사나는 개념의 세계, 속제(俗諦)의 세계, 사구(死句)의 세계를 뛰어넘어 활구선(活句禪)을 성취한다. 그 때에 이르러 위빠사나 또한 돈오를 성취할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속(俗)과 진(眞)이 연장선상(延長線上)에 있기 때문에 위빠사나의 지혜는 이(理)와 더불어 사(事)까지도 포함한다. 조계사 사태는 이적(理的인) 지혜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적(事的인) 지혜의 부족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사용통한 아함의 선사상을 재삼재사 음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산책

우주는 왜 무에서 탄생했나 ②

양자론의 우주탄생 해명

우주의 온도는 공간의 팽창과 더불어 내려간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된다. 그것이 우주 탄생에서 약 30만 년 후의 사건으로 빅뱅 시대의 말기에 해당한다. 그 후는 원자가 모여 천체가 되는 '천체의 시대'가 된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되었을 때를 '우주의 맑게 감'이라고 부른다. 그 빛이 그 시대의 우주에서 현재의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주는 길이로 하면 1000 배 정도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빛의 파장도 늘어나고, 결국 에너지가 줄고 절대온도 3K 정도인 극저온의 약하기만 한 전파가 된다. 이전과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965년 전파 망원경에 의하여 발견되어 빅뱅 이론의 관측상의 최대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宇宙背景輻射)'라 부르고 있다.

빅뱅 이론이 옳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우주는 더욱 수축하여 결국 공간의 모든 점 사이의 거리가 0이 되고 만다. 즉 공간이 찌부러져 버리는 순간에 다다른다.

물론 거기까지의 관측상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믿고 공간의 운동을 따라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 탄생의 순간이다. 여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거시(巨視, macro)와 '미시(微視, micro)라

이 미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자는 '입자'이지만, '파'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결국 전자라는 미시의 입자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체와는 다른 새로운 입자상(像)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20세기의 새로운 물리학적 양자론(양자 역학)이다. 양자 역학에서 파장이 길수록 그 전자의 에너지는 작다고 알려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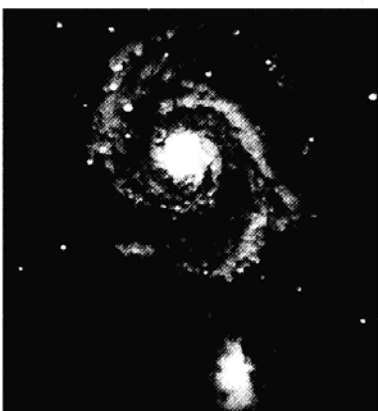
불확정성 원리·0점 진동설 無 상태의 우주 팽창 설명

는 20세기 물리학의 새로운 측면이다. 20세기에 들어와 물질은 원자나 전자라는 미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미시적 입자의 움직임은 거시적 물체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양자론(量子論, Quantum Theory)'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팽창 우주론에서도 중대한 문제였다.

현재의 우주는 분명히 거시적이지만 우주 탄생의 순간에는 공간

다. 전자의 에너지는 그것 이상 감소할 수 없는 '최소값'이었다. 결국 최대 파장의 파로 표시되는 전자는 전자파를 방출하고 그 이상 에너지를 줄일 수 없다. 이것이 원자가 찌부러지지 않는 이유이다.

사실 미시 입자에 대한 문제는 양자 역학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전자파(電磁波), 그리고 그 일종의 빛이 사실은 파가 아니라 '광자(光子, photon)'라는



◇외상 은하계로써는 처음으로 발견된 활동은하계.

입자 집단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광전효과(光電效果)'라 불리는 현상이다. 그러나 광자에는 전자의 양자 역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場)의 양자론'이라는 한 단계 더 발전한 양자론이 등장하였다.

우주가 팽창해 가는 모습을 비탈길을 구르는 공에 비유해 보자. 비탈길 정상에 위치가 공간이 완전히 찌부러져 있는 상태에 대응한다. 결국 공간도 시간도 없는 '무(無)'의 상태이다. 그리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많이 팽창한 우주에 대응한다고 생각된다.

이 비탈길의 정상에 가만히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양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양자론에는 불확정성 원리, 또는 0점 진동이라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가 완전히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처럼 보여도 실은 전자 기장의 0점 진동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정상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상태도 반드시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약간이라도 밀리면 비탈길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므로 공은 굴러 떨어진다. 결국 무의 상태도 요동하고 있고, 거기서 우주는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계속>

필한 <과학 Newton>서 발췌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2

믿음

믿음이 없으면 정신적 통찰이라는 식물이 싹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씨앗(種)'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치있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적용되며 공산주의와 같은 현대사상의 한 조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은 증명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지성적, 의지적, 감정적, 사회적인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지성적으로 믿음을 이해할 수 있고 사실적인 증거로는 증명되지 않은 교리들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해야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로써 기꺼이 우리의 지식의 틀을 깨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성적인 태도로서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주로 의심과 당황이다.

모든 종교에서 어떤 가설 혹은 가정들은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경전이나 스승의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믿음은 단지 예비단계, 임시적인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정신적 자각은 믿음이 믿고자 하고 알고자 했던 것을 알게 한다. 지혜의 덕이 실제의 진실한 본성에 대해서 폭넓은 통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때까지는 교리상의 많은 문제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감각이나 이성이나 세속적인 것만 갖고는 교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4가지이다. 업(業·

자기완성 추구의 씨앗

윤회·연기·삼보·열반을 믿자

Karma)과 윤회에 대한 믿음, 연기(緣起), 무아(無我), 공(空)에 대한 믿음, 세 가지 '귀의처' 즉 불(佛·Buddha), 법(法·Dharma), 승(僧·Sangha)에 대한 믿음, 수행의 효력 즉 모든 고통이 사라진 궁극적인 단계로서의 열반(Nirvana)에 대한 믿음 등이다.

현대와 같은 회의적인 시대에서 우리는 믿음의 지성적인 면에 대해서 훨씬 많이 숙고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한 말의 산스크리트어인 'Sradha'는 어원적으로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라틴어 'cor'와 유사하다. 그만큼 신앙은 지성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 이에 대해 라다크리슈난(Radhakrishnan) 교수는 "믿음이란 주어진 관념에 마음의 힘을 집중함으로써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지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단호하고 용기있는 의지의 행동을 내포한다. 믿음은 일을 처리하는 단호한 결단력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확신을 결합시킨 것과 같다.

나선너머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적과 대치해 있거나 병이 나서 굶주림으로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험을 보임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워줄 사람에 비유될 수 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특을 따라가면서 공포에 떨 것이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소심하고 겁쟁이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비열하고 타산적인 성향을 갖는다. 믿음은 발리어 'adhimokkha(확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확신은 어떤 대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확하게 선택한 후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 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하고 생각하는 결단력 없는 어린이처럼 주저하는 것과 반대된다.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깨닫고 붙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의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후학자(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학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든든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든든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 (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후학자(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서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서(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술선식(松仙食)」,「술효소정액(松醇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은 큰 자량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동진형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